

#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 2020년 11월

- \* 서면 제출일 : 2020. 11. 19.(목)
- \* 총원 15명 중 9명 참여
- \* 참여 위원 : 고미아 · 김요수 · 김태진 · 류한호 · 박미자 · 임철원 · 이정권 · 조숙경 · 최영태
-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0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보도

#### □ 김요수 위원

-10월 28일 뉴스,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동 수단과 운송 수단으로 소와 말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던 시절은 사실 불과 10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의 발달로 자동차뿐 아니라 여러 가지 탈 것과 운송 수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을 우리의 법이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와 위험의 실태를 조목조목 따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살펴 주었습니다. 보도에서 본 것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우선 광주에서라도 행정력이나 조례를 통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11월 4일 뉴스, 무등산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관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면,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보도였습니다. 야생동물, 그것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촬영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생생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별을,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하면 무등산뿐 아니라 자연의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깨달음을 준 좋은 보도였습니다.

-11월 10일 뉴스, 해남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을 취재했는데요, 청자의 발상지를 찾고, 선조의 지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취재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런 뉴스는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시기별로 후속 취재를 해서, 발굴도 발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지혜로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주기적으로 찾아가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이 바뀌고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남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디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 시설처럼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뉴스가 한 걸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박미자 위원

-11월 17일 <뉴스데스크> 운암동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흐린 화면이었지만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사고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자체였다. 짧은 내용의 소식에 인터넷뉴스 등을 검색해 보면서 뉴스마다 내용이 약간씩 달랐으며 심지어는 사망한 아이가 다른 기사도 있었다.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큰 사고로 학생이 다쳤고 자치위원장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신호체계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의 인터뷰는 없었다. 큰 사고 이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지만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도로교통법 때문이라지만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야만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행정이야말로 뒷북 행정 아닐까.

취재 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대변해 주는 의미에서 시청자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취재해 준다면 더 신뢰가 갈 것이다. 뉴스의 가치가 빠르고 정확한 것이겠지만 뉴스를 통해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뉴스의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 □ 최영태 위원장

-코로나로 초중등학교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상당한 장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 완화, 출퇴근 시간 절약, 사무실 공간 절약 등.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비대면 교육의 한계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저하,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간 격차 증가, 무엇보다 아이들 간의 관계 형성 기회 부족 등 그 부작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 하에서도 초중등학교는 가능한 한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교육운동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이런 운동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 김낙곤의 시사본색

#### □ 고미아 위원

-2020. 11. 08. <김낙곤의 시사본색> ‘보궐선거 공천 논란과 지역 현안’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과 답변자로 이어지는데 적절한 소개의 화면(CG)과 하단 스크립트를 쓰는

것, 그중 어려운 단어들에 간단 설명을 위로 붙여주는 등 화면미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시사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적절한 설명과 부연은 아주 중요하다 보아서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의 순서도 매끄러워서 보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보궐선거 공천 결정(자성비판의여론)-공정경제3법-광주군공항 이전 문제-5.18진상규명특별법/역사왜곡특별법-시도통합 문제의 건(전국의 초광역화)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은 솔직한 답변과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유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는 답변자의 모습도 차분하게 진행되어 전체를 보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무게가 꽤 있는 내용을 너무 짧게 진행하다 보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것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요점정리로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화면 구성도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더 현장에서 힘을 가지고 또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자주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더 시사에 많은 기대와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 □ 최영태 위원장

-<김낙곤의 시사분석> 프로그램 시작 시각이 7시 10분으로 앞당겨졌는데 시사프로그램 시간으로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KBC의 <시사터치! 따따부따> 시간이 토요일 오전 8시 30분이고, KBS 광주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시사토론 10>이 화요일 오후 10시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 배정에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겨울철 휴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매 전라도

#### □ 고미아 위원

-2020. 11. 18. <오매 전라도>에서는 광주시 감염병 정책과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실제 해당 박항 국장님이 직접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안에 대해 적극적 설명과 인지가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있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방송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시간 방송이라 그런지 지금 인터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가 되지 않는 것 같구요. 실제 그 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자세한 사항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건 광주라는 도시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관공무원들의 파워풀함도 느낄 수 있는 대목으로 언지가 되었음 합니다.

실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1.5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지가 좋았습니다. 거리를 더 둔다는 것 단체 모임은 100인 이상 금지라는 것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는 전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나 지켜야 하는 내용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새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실생활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MBC 시청자 문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서로 나누는 시청자와의 공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밖을 못 나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런 공감 느낌의 방송이 조금 더 눈이 가고 좋아지고 따뜻한 방송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따뜻한 방송 많이 보여주세요.

#### □ 김요수 위원

-10월 24일 <오매 전라도>, 방앗간을 카페로 바꾼 담양의 소식을 통해 우리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하고, 모텔을 카페 미술관으로 바꾼 장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낡아서, 쓸모가 없어서, 방치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손길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진행하는 <오매 전라도>의 소재 발굴이 힘들 텐데, 좋은 소식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가을을 채워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오매 전라도>를 통해서 좋은 풍경을 보러 다닐 수 있어서 좋고, 다니면서도 그냥 쓱 지나가지 않고 살펴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10월 26일 <오매 전라도>는, 채널을 돌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습니다. 그만큼 호기심과 재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 시립미술관에 꾸며진 ‘마자르’ 소식입니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인데, 어플을 통한 증강현실을 체험하게 꾸몄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재밌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고, 전시 기간도 길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운영). 과학과 예술과 놀이를 섞어 만들어,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놀이 전시입니다.

2) 담양으로 정착한 구두 디자이너의 인터뷰였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대나무를 구두에 접목시켰고, 구두 전시가 관광까지 연계시키는 일이지 싶습니다. 구두가 단순히 작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신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작품과 실용이 어울린 디자이너 인터뷰였습니다. 새로운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성공 사례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좋은 꼭지였습니다.

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청송 주왕산 지오파크를 소개하는 꼭지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텐데요, 저는 공룡과 주상절리대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지, 한 수 배웠습니다. 화면으로 풍경도 잘 감상했지만, 관광 포인트와 촬영 포인트를 느끼게 했고, 아나운서의 적절한 표현 능력이 재미를 더했습니다.

4) 함평의 두 귀농자를 취재했는데요, 대추와 백향과였습니다. 흔한 대추 농사인 것 같지만, 토질과 농법을 통해 대추 농사를 알려주었고, 대추즙으로까지 여러 활용 가치를 알려줌으로, 대추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열대과일 패션후르츠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백향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100가지 향과 맛이 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계꽃이라 불리는 꽃도 예쁘고, 백향과를 먹는 여러 방법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우와 나비로 알려진 함평을 대추와 백향과의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람차게 보였습니다.

## 문화콘서트 난장

#### □ 박미자 위원

-나주문화재야행기념 나주정미소곡간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난장>은 오랫동안 방청객과 함께하는 무대였으며, 랜선 관람과 현장 관객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다. 디지털 무대로 화려하고 3차원적 배경이 웅만한 음악방송에 전혀 부족함 없었다. 한가지, 요즘 핫한 이날치 팀이 첫 무대였는데 한 곡이 5분 40초가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는 무대가 조금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흥겨운 가락과 익숙한 비트가 어울리는 변화무쌍한 무대 화면은 수준급 연출이었으며, 재미난 가사와 박자로 이어지는 나머지 노래들은 실력 있는 팀의 공연을 증명이라도 한 듯 화려한 무대였다. 이어진 신현희의 무대에서는 랜선 관람 중인 시청자들과 화면으로 같이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며 비대면시대의 앞서가는 광주MBC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출연한 현진영은 춤과 함께하는 라이브여서인지 음정 이탈이 빈번하여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고 조금은 아쉬운 공연이었다. 가수 인생 30년 된 현진영이 관객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말에 작은 감동이었다. 코로나로 공연이 멈춘 가수에게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절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라디오 프로그램

#### □ 조속경 위원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어떤 현안들을 챙겼는지를 체크했던 시리즈 인터뷰가 아주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나아가 국가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과 국민의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챙겨야하고 언론은 그 역할을 잘하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하는데, 그런 역할이 잘 수행된 듯했습니다

-<가을 양림 라디오에 반하다> 특집 방송도 아주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양림동 활성화에 좋은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 기타

#### □ 고미아 위원

-요즘 코로나로 2020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또는 논평으로 또는 이야기로 만들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미디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는 캠페인성의 다양한 기획을 하고 한 번 더 나아가 대중을 이끌어가는 것도 선한 미디어의 힘이 될 것이라 한 번 더 생각해봅니다.

기부라는 것을 순간 생각하면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MBC는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채널이라 감히 말해봅니다.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챌린지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따

뜻한 광주의 모습을 시민들은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해봅니다.

“마스크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챌린지를 통해 기업이든 학계이든 또는 어느 누구라도 10만 원가량의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또는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홍보영상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지금 사용하면 더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독려의 카피를 홍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 마스크가 누군가에게는 실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부터 함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건 어떨까요? 방송과 기부자가 함께 시작하는 챌린지 MBC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챌린지는 개인의 예시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이나 더 많은 밝고 이겨내 자라는 긍정의 에너지 기획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 □ 김태진 위원

-두 가지 특별방송 프로그램 홍보의 건

최근 너무 기대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안 탐 밴드>이고, 하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시안 탐 밴드>는 첫 방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비롯하여 온라인상에서 그 내용을 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음악방송(예-쇼미더머니) 콘텐츠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방송된 콘텐츠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올라오는 것에 비해 <아시안 탐 밴드> 유튜브 채널에는 5일이 지난 현재 티저 영상들과 2회 예고편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송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온라인 콘텐츠도 업로드 된다면 조금의 시너지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광주MBC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동시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광주MBC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상에서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프로그램들인 만큼 사전 홍보 콘텐츠(웹 배너, 예고 콘텐츠 등)들이 많이 노출되어 관심도를 좀 더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각종 뉴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광주MBC 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류한호 위원

-<시청자가 만드는 TV>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표현할 권리와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함. 시청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한 시청자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질을 갖추는 것은 필요함. 특정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오히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음.

지역 내에 방송할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민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MBC 수준의 접근이나, 또는 지역방송이 연대한 수준의 접근이 필요함.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콘테스트를 시도하고, MC와 내레이션 교육, 제작교육 등을 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TV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고민할 때

광주MBC의 TV 프로그램은 특집에서는 <핑크피쉬>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정규프로그램을 보면 <김낙곤 시사본색>, <오매 전라도>, <테마기행 길>, <문화콘서트 난장>, <얼씨구당>으로 오래전부터 해 온 장르를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포맷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작은 변화(face lift)를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짐.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에 전통적 프로그램 형식을 유지하는 것도 무난할 수 있지만, 대전환 수준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도 있음. 내부 공모를 해서 젊은 PD들이 창의력과 실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고, 외부로부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안도 있음.

#### □ 이정권 위원

-<얼씨구당>

판소리꾼이자 한문교사인 백금렬, 방송인이자 마당극배우인 지정남, 진도 출신의 국악박사 이윤선 등 3명의 진행자와 게스트가 국악의 이면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국악토크쇼다.

라디오에서 국악 음원을 들려주는 정도와 텔레비전에서 무대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얼씨구당>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다양한 국악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기존의 국악방송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방송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는 스타와 국악에 대한 정보를 풀어내어 흥미롭게 이끌어낸다. 유튜브용 콘텐츠로 기획, 제작되어 고정 시청층을 확보한 후 텔레비전에 편성되어 경쟁력을 입증한 것 같다.

향후 국악 관련 콘텐츠를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국악 + 힙합 or 대중가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요청드린다. 기존 미디어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 변화 기대한다.

#### □ 임철원 위원

-세계지질공원 제3부, 땅이 간직한 비밀(11/5)

3부는 지난 9월에 방영되었던 '1억 년 전의 유산 1, 2부'에 이은 후속편이자 완결편이라 볼 수 있다. 지금은 무등산이 광주시와 인근 지역을 어머니 품처럼 평화롭게 감싸고 안식과 휴식, 위로를 주고 있지만 과거 3번의 화산 폭발과 땅과 바다가 힘겨루기를 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지질여행을 통해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특히 세계지질공원의 하나인 한탄강을 시작으로 위도, 부안, 마이산, 운곡습지, 백령도, 화순적벽, 담양하천 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명소를 소개하며 수억 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의 변화과정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듣게 되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다가왔다.

무등산은 광주의 명소이자 자랑이지만 한편으로 거대한 영산강 생태환경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무심결에 봐왔던 무등산의 지질학적인 역사와 가치를 알게 되고, 무등산이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속 지질공원이자 수억 년의 비밀스럽고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음을 새로이 알게 되어 흡족하고 무등산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적

트렌드로 가꾸고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MBC가 광주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지질공원의 교육,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정호 뮤직페스티벌(11/3)

코로나로 열광적인 관중을 모아놓고 진행한 공연은 아니지만 요절한 천재가수 김정호를 기리는 뜻 있고 감명 깊은 공연이었다. 김정호의 노래는 한창 성장기였던 내 또래에서 좋아했고 시린 가슴으로 즐겨 불렀기에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얀 나비’나 ‘이름 모를 소녀’는 지금도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들 모임 때면 가장 애창하는 노래다. 이날 공연을 보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빗속을 돌이서’ ‘님’ ‘저 별과 달을’ 등 다른 가수가 불렀던 노래도 김정호 작곡임을 알고 김정호를 많이 모르고 있음에 반성이 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어 우리 지역이 배출한 천재적인 가수이자 당시 흔치 않았던 대표적 singer song writer인 김정호 노래를 재조명하여 홍보하고 김정호의 삶의 궤적이 남아 있는 거리를 정비하고 가꾸어 대구의 김광석 거리처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키면 좋겠다.